

(2) 백 중

7월 보름은 백중이다. 온갖 곡식이 풍성한 때라서 백중으로도 불린다. 백중은 1년을 반으로 나눌 때 처음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중원이라고도 하며, 정월 대보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축 행사가 벌어지고, 농가에서는 여름 농한기에 들어 하루를 쉬며 논다. 각 가정에서는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올린다. 전에는 백중에 즈음하여 농촌에서는 장원례를 하였다. 그해 농사가 가장 잘된 집에서 마지막 논매기(만물)가 끝나면 그 집 머슴을 소에 태우고 풍물을 울리면서 주인집에 들어간다. 주인은 술과 안주를 내어 일꾼들을 대접한다.